

Research on Social Exclusion and Successful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of the Disabled

Jeongmin Park* & Sangho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eliminate social exclusion for the successful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of the disabled.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factors and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activity in this influence relationship. Data processing was done using IBM's SPSS ver. The hypothesis was verified by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diation effect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with 21.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social exclusion that had the highest impact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of the disabled were identified in that order: employment exclusion, social activity exclusion, and health exclusion. Second, self-esteem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employment exclus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for the disabled, and self-esteem showed a full mediating effect in health exclus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Third, the household finances of the disabled were found to regulate employment exclus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e importance of household finances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by resolving social exclusion, restoring the disabled's self-esteem, and resolving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this research, basic data for successful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of the disabled were present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were presented.

Key Words: Successful Preparation for Old Aged Life, Social Exclusion, Employment, Health, Social Activities

□ 접수일: 2024년 4월 6일, 수정일: 2024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8일

* 주저자,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First Author, Professor, Dongshin Univ., Email: jmpark21@hanmail.net

** 교신저자, 목포대학교 스마트비즈니스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 Email: naya245@mokpo.ac.kr

I. 서론

장애인은 거주하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만족과 행복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이중섭, 2009)와 자신이 유능하고 효율적이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이성은, 2009; Cast & Burke, 2002)인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조희준, 2017).

고용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가 장애인을 위한 삶의 만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로 확대되면서(문필동·이정화, 2015; 박세홍 외, 2009)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검증되었으나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활동의 범위 역시 확대되면서 사회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 주관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김태룡 외, 2000; 최재성 외, 2009),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경제,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 각 영역별로 배제 기준을 설정하고 영역 수준 심지어 개별 지표 수준에서 개인의 배제 여부나 배제 집단의 비율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때 기준에 포함되면 배제 그렇지 아니하면 비배제 식의 이분법적,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배제 정도(程度, degree)가 아닌 배제 여부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며, 이는 배제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역동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에의 영향 또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양적 분석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서 판단되는 점에서 상대성(관계성)을 지니고 있기에(김동기·이웅, 2012), 사회적 배제의 정도 측정을 통한 장애인 비교도 필요하다. 더욱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연구범위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현 위치와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일반적인 특성 외에도 장애의 은폐에 따라 배제가 강화되는 은폐성(concealment), 다양한 영역들이 상호작용하여 배제를 강화하는 가산성(additivity), 장애인 내에서도 이중 차별 등으로 인한 고령자, 남녀, 장애인 간의 차별성(differentiation)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김동기·이웅, 2012), 이에 대한 실증 역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 장애인은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서 누려야 할 상대성에 제한을 받고 있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다차원성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

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서 제기된 은폐성, 가산성, 차별성은 장애인이 지닌 손상과 환경의 영향 등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김동기·이웅, 2012).

상대성 제한은 장기간에 걸친 타인에 의한 거절 경험의 축적으로 발달되어 열등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외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이성은, 2009).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배제에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장애인의 노후 준비는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성공적 노후 준비가 열악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가산성이나 고용의 차별성 및 경제활동 촉진 제한 등의 존재와 크기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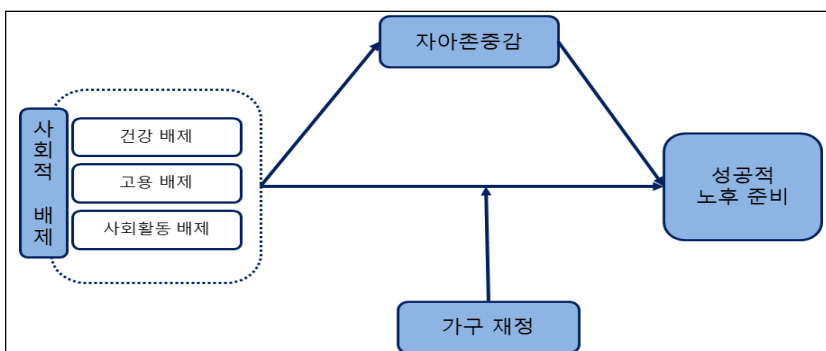
본 연구 목적은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 요인과 노후 준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가구 재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배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회복과 가구 재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고,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건강, 고용, 사회활동)는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배제(건강, 고용, 사회활동)와 노후 준비의 영향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장애인의 가구 재정은 사회적 배제(건강, 고용, 사회활동)와 노후 준비의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대상

본 자료는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제공하는 원시자료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다운로드 한 후에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통합 조사표(2~7차 조사)를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1차 조사(2016년)는 총 10개의 파트로 구성하였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2~7차조사(2017~2022년)의 주요 내용들은 지난 조사 이후의 변화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연구와 관련이 없는 문항들은 제외하고, 총 2,743명의 설문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771	64.6
	여성	972	35.4
고용형태	취업자	1469	53.6
	실업자	25	.9
	비경제활동인구	1249	45.5
최종학력	중졸 이하	825	30.1
	고졸	1261	46.0
	대졸 이상	657	24.0
	신체외부장애	1723	62.8
장애유형	감각장애	597	21.8
	정신적장애	222	8.1
	신체내부장애	201	7.3
	장애상태 악화, 장애치료 등 장애문제	947	34.5
노후준비 시 염려사항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	520	19.0
	경제적 문제	841	30.7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것	115	4.2
	자녀 등 가족 문제	19	.7
	외로움(배우자 없음 포함)	87	3.2
	기타	2	.1
	특별히 없음	212	7.7

2. 조사도구

1) 사회적 배제의 조사도구

사회적 배제의 조사도구는 Gannon & Nolan(2006), 배화옥·김유경(2009), 유동철(2011), 오혜경·김가람(2011), 강현정·김윤정(2011), 박수명(2013), 임동권(2016), 김수진(2019), 조희준(2017), 이승민(2021) 등이 사용한 변수를 중심으로 사용하였고, 대표적으로 <표 2>와 같이 측정요인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배제 요인에서 건강 배제는 정신적 건강인 생활스트레스와 장애스트레스로 하였다. 고용 배제는 고용형태로 하였고, 사회활동 배제는 동회와 봉사활동으로 하였다. 배제 기준은 척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 요인

연구자	요인	배제 기준	지표
배화옥· 김유경 (2009)	교육	중등교육 이하	학력
	고용	임시직, 일용직, 실직 등	고용형태
	가족	무배우자, 불만족	혼인상태, 가족생활만족도
	건강	나쁨, 매우 나쁨, 우울	신체 건강상태, 우울 정도
	사회참여	경험 없음	자원봉사 경험, 인터넷 사용
윤상용· 홍재은 (2016)	경제	취업여부, 임시근로 등	취업상태, 고용형태 등
	정치	투표하지 않음	투표 여부
	문화	월 1~3회, 불만족	외출빈도, 문화여가활동 만족
	관계망	무배우자, 불만족	혼인상태, 대인관계만족
성준모 (2016)	소득	60% 미만	균등화된 중위가구 소득
	고용	미취업	취업 여부
	건강	있음	만성질환 유무
	교육	고졸 미만	최종학력
	사회참여	미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원서진 외 (2016)	소득	소득 없음	소득 유무
	노동	미취업	취업 여부
	건강	나쁨, 매우 나쁨	건강상태
	주거	전/월세	주택소유 여부
	교육	중졸 이하	최종학력
	사회참여	거의 못보거나 없음	친하게 지내는 지인 수

출처: 조희준(2017)의 연구에서 재구성.

2) 가구 재정의 조사도구

가구 재정의 조사도구는 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통합 조사표(2~7차 조사)에서 제공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가구 재정의 문항은 사람 만나는 일의 어려움, 문화여가생활 어려움, 살집을 구할 때마다 어려움, 매월 공과금 납부 어려움, 필요한 치료의 어려움으로 구성하였다. 척도가 낮을수록 가구 재정이 어렵고, 척도가 높을수록 가구 재정 어렵지 않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의 조사도구

자아존중감의 조사도구는 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통합 조사표(2~7차 조사)에서 제공한 자아존중감에 관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문항은 가치 있는 사람, 좋은 성품, 다른 사람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자랑 정도, 긍정적 태도, 자신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하였고, 척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척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노후 준비의 조사도구

노후 준비의 조사도구는 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통합 조사표(2~7차 조사)에서 제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로 사용하였다. 척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척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분석 도구로는 IBM사의 SPSS ver. 21.0으로 빈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미만으로 하여 유의한 값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와 노후 준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3단계 매개회귀분석으로 사회적 배제와 노후 준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3단계 조절회귀분석으로 가구 재정이 사회적 배제와 노후 준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적 배제와 성공적 노후의 영향 관계

〈표 3〉과 같이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의 회귀모형 설명력 R^2 는 .145(수정된 $R^2 = .144$)로 나타났고, 공차는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식이 성립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용 배제는 표준화 계수(β)가 $-.336(p=.000)$ 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건강 배제는 표준화 계수(β)가 $-.055(p=.002)$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배제는 표준화 계수(β)가 $-.122(p=.000)$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높은 사회적 배제의 요인은 고용 배제, 사회활동 배제, 건강 배제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배제가 증가할수록 노후 준비는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사회적 배제와 노후 준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공선성	
		<i>B</i>	<i>SE</i>	β	<i>t</i>	<i>p</i>	공차	VIF
사회적 배제	(상수)	2.363	.100		23.703***	.000		
	고용 배제	-.154	.008	-.336	-18.834***	.000	.980	1.021
	건강 배제	-.036	.012	-.055	-3.110**	.002	.989	1.011
	사회활동 배제	-.334	.049	-.122	-6.845***	.000	.978	1.023
R^2 (수정된 R^2)		.145(.144)						
F 통계량(p)		155.265(.000)						

* $p < .05$, ** $p < .01$, *** $p < .001$.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표 4>와 같이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분석하였다. <표 4>의 3단계의 회귀식 모형과 같이 R^2 은 .160(수정된 R^2 은 .158)으로 설명력(R^2)은 16.0%로 나타났다. F 통계량은 130.096($p=0.000$)으로 회귀식이 성립되었으며,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요인은 고용 배제와 건강 배제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노후 준비에 유의하게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요인은 고용 배제, 건강 배제, 사회활동 배제로 나타났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사회적 배제의 요인은 고용 배제와 건강 배제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노후 준비에 대하여 표준화계수 값(β)은 .133($p=.000$)로 유의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의 조건에 충족하였다.

3단계에서 고용 배제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인 표준화계수 값(β)은 -.287($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건강 배제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인 표준화계수 값(β)은 -.029($p=.114$)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 배제와 노후 준비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 배제와 노후 준비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배제와 노후 준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결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자아존중감			노후 준비			노후 준비		
	β	t	p	β	t	p	β	t	p
(상수)		40.053***	.000		23.703***	.000		14.822***	.000
고용 배제	-.369	-21.277***	.000	-.336	-18.834***	.000	-.287	-15.016***	.000
건강 배제	-.200	-11.599***	.000	-.055	-3.110**	.002	-.029	-1.581	.114
사회활동 배제	-.032	-1.867	.062	-.122	-6.845***	.000	-.118	-6.654***	.000
자아존중감							.133	6.841***	.000
R^2 (수정된 R^2)	.192(.192)			.145(.144)			.160(.158)		
F 통계량(p)	217.515(.000)			155.265(.000)			130.096(.000)		

* $p<.05$, ** $p<.01$, *** $p<.001$.

3. 가구 재정의 조절효과 분석

<표 5>와 같이 <가설 3>의 검증을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조절효과를 실시한 결과는 회귀모형 유의성에서 모형1, 모형2, 모형3의 설명력(R^2)이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조절효과 검증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3단계에서 고용 배제와 가구 재정의 상호작용항(A×D)이 유의($p<.05$)하여 가구 재정은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에서 가구 재정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의 영향관계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고, 모형 2에서 가구 재정과 노후 준비의 영향관계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모형 3에서는 상호작용항(A×D)이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고용 배제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부(-)의 영향 관계를 가구 재정이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가구의 재정이 증가할수록 노후 준비에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의 관계에서 가구 재정의 조절효과 결과

모형	표준화 β	t	p	공차	회귀모형 유의성
1	(상수)	160.884***	.000		$R^2 = .145$ $\Delta F = 155.265$ $p = .000$
	고용 배제A	-.336	-18.834***	.000	
	건강 배제B	-.055	-3.110**	.002	
	사회활동 배제C	-.122	-6.845***	.000	
2	(상수)	164.980***	.000		$R^2 = .188$ $\Delta F = 142.314$ $p = .000$
	고용 배제A	-.282	-15.664***	.000	
	건강 배제B	.004	.221	.825	
	사회활동 배제C	-.119	-6.810***	.000	
	가구 재정D	-.222	-11.930***	.000	
3	(상수)	153.690***	.000		$R^2 = .191$ $\Delta F = 3.694$ $p = .011$
	고용 배제A	-.284	-15.783***	.000	
	건강 배제B	.003	.188	.851	
	사회활동 배제C	-.117	-6.606***	.000	
	가구 재정D	-.225	-12.056***	.000	
	상호작용항A×D	.052	2.946**	.003	
	상호작용항B×D	.013	.738	.460	
	상호작용항C×D	.011	.644	.520	

종속변수: 노후 준비

* $p<.05$, ** $p<.01$, *** $p<.001$.

하지만, <표 5>에서 건강 배제와 가구 재정의 상호작용항(㉔×㉕)이 유의하지 않아($p>.05$) 가구 재정은 건강 배제와 노후 준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배제와 가구 재정의 상호작용항(㉔×㉕)이 유의하지 않아($p>.05$) 가구 재정은 사회활동 배제와 노후 준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회복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가구 재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의 노후 준비에 사회적 배제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 준비에 영향력이 제일 높은 사회적 배제의 요인은 고용 배제이고, 사회활동 배제, 건강 배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가 증가할수록 노후 준비는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동기·이웅(2012)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용, 건강 등의 장애인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남기철(2005)은 장애인의 경제적 결핍과 노동에서 발생한 배제가 고령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장애인의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건강 배제와 노후 준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노후 준비에 대한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규명할 때는 자아존중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수진(2019)은 고용, 건강 등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김수진 외(2020)는 노후의 경제적 불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리적, 정서적 위협이라고 하였다. 이성은(2009)은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제외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노후에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노후 준비 시 염려사항에서 경제적 문제보다 장애상태 악화, 장애치료, 장애 이외의 건강 문제 등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가구 재정은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의 고용 배제가 노후 준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관계를 가구 재정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의 가구 재정이 증가할수록 노후 준비에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김자영·한창근(2016)은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는 자산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고, 자산 수준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장애인은 생애주기에 있어서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하여 생애주기에서 청년기부터 가구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고용과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는 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노후 준비는 경제적 불안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적 안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고용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노동시장에서는 공동체적 관계 마련이 요구된다. 공동체적 관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은 채용 이후에도 사회적 배제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심리적, 정서적으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고용 안정성과 가구 재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유지하면서 의무고용율(퀴터)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면서 중장기적인 의무고용율과 대상 인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사회활동 결여, 경제적 어려움, 장애상태 악화, 고용불안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후 준비도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통한 비장애인 보다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장애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이 성공적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정·김윤정(2011),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323-334.
- 김동기·이웅(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7: 129-147.
- 김수진(2019), 사회적 배제, 가정생활스트레스, 우울의 종단적 관계: 노인부부가구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2019), 사회적 배제, 가정생활스트레스, 우울의 종단적 관계: 노인부부가구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김주현·주경희(2020), 사회적 배제 잠재유형이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40(1): 33-49.
- 김자영·한창근(2016),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42(2): 169-190.
- 김태룡·오승석·태기남·안희정(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9: 135-155.
- 남기철(2005),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15(2): 121-142.
- 문필동·이정화(2014),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6: 173-192.
- 박세홍·김창엽·신영전(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우울감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7: 79-120.
- 박수명(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배화옥·김유경(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55-76.
- 성준모(2016),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요인, *장애와 고용*, 26(3): 125-148.
- 오혜경·김가람(2011), 여성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6: 47-67.
- 원서진·김혜미·송인옥(2016),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에 따른 차이점 분석,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8): 301-311.
- 유동철(2008),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8(1): 5-26.
- 윤상용·홍재은(2016), 정신장애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타 장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3: 149-174.
- 이성은(2009),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27: 209-242.
- 이중섭(2009),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5.
- 임동권(2016),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배제에 관한 종단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희준(2017),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재성·강영숙·김진욱(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309-34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e-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Gannon, B., & Nolan, B. (2006), *The Dynamics of Disability and Social Inclusion*, The Equality Authority.

【국문초록】**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성공적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박 정 민 · 이 상 호**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배제 요인과 노후 준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가구 재정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IBM사의 SPSS ver. 21.0으로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내용: 첫째, 장애인의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높은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고용 배제, 사회활동 배제, 건강 배제 순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의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건강 배제와 노후 준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가구 재정은 고용 배제와 노후 준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회복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가구 재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성공적 노후 준비, 사회적 배제, 고용, 건강, 사회활동